

"좋아요" 와 "구독" 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.

쟈스민, 한 걸음 나아감

글은 "밑줄 클릭" 만으로 열람 가능합니다.

☞구독을 원하시면 [여기](#)를 클릭하여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!

“따뜻한 **글**고기 **백반** 한 사바리 하고 가이소~”



내 인생 최고의 우동 - 다빈치

“여전히 그곳에서는 그 우동을 팔고 있는지, 누군가는 오늘 저녁에도 그 우동을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을지 궁금하다.”

복어 대가리를 아시나요 - 전주

“어느 날 신나게 복어머리를 먹다 깨달은 마음이 있다.”

튀겨야 제 맛 - 모아나

“갓 튀겨져 나왔을 때의 바삭한 식감, 적당히 식으며 본연의 맛이 살아나는 튀김 한 조각과 생맥 한 잔.”

떡볶이와 곱창의 추억 - 원재

“떡볶이 하나를 나무 꼬챙이로 콧 찍어 입에 넣었을 때는 행복을 주던 그 맛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나는 어릴 적 추억만을 먹었을 뿐이다.”

책야한다라는 이유

우리 모두 자신만의 그리고 글을 쓸 때 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.

“보드카엔 뭐니뭐니해도 쥬시쿨 자두 맛이다.”



쥬시쿨 자두맛 3 에 보드카 2 섞어 기분 전환을 꾀한다. 감추려 섞는 그 맛, 보드카에 콜라, 오렌지 주스, 블루베리 주스, 다양한 잡탕을 마셔 봤지만 쥬시쿨이 단연 으뜸이다. 그렇게 두 잔을 마셨다.

달아 오른 얼굴 식힐 겸 창문을 연다. 한 겨울, 아찔한 공기 한 모금에 문득 그때가 떠오른다. 그 날은 홍대 모 클럽이었다.

※세 번째 출간을 알립니다!※



메오를 부탁해

뇌수막염에 걸린 강아지를 기적처럼 살려낸 가족 이야기

손은경

황기애

시골 장에서 2만 5천원에 데려 온 강아지, 메오. 똥도 씹어 먹을 만큼 강한 놈이라 여겼다.

평온한 일상 속 5년이 지난 어느 날, 메오가 이상하다. 듣지 못하고, 보지 못한다. 사방팔방 거실을 배회하다 쓰러져 거품을 문다. 그에게 문제가 생겼다.

<메오를 부탁해>
(↑클릭)

병명은 "비감염성 뇌수막염." 길어야 2년이라는 시한부 판정과 함께 우리 집은 초상집이 되는데..

♡ 홍보 및 광고 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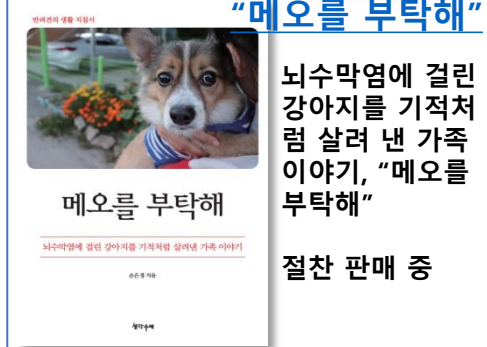
“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삶, 자존”

자존은 키우고 가꾸는 거라는, 그녀의 자존 생존기를 녹였다.



“32년째 엄마 사랑해”

아직 딸의 삶이 전부인 나는, “엄마가 보여주는 사랑”을 전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가없다는 것만은 압니다.



“메오를 부탁해”

뇌수막염에 걸린 강아지를 기적처럼 살려 낸 가족 이야기, “메오를 부탁해”
절찬 판매 중

쟈스민 일보(쟈스민, 한 걸음 나아감)를 개간하였습니다. 무엇을 실을 지는 정해두지 않았습
니다. 다양한 소식을 실을 예정이라, 나도 그 어디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거든요! 당신의 이
야기가 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.

쟈스민의 다양한 활동은
<https://brunch.co.kr/@supereunkyung>
기타 다양한 제안은
bestjasmineever@naver.com